

PS 가격 추가인상 성공할 것인가?

수요강세 · 원료코스트 상승에 재고 낮아 ... 2005년까지 수급타이트

미국의 PS(Polystyrene) 생산기업들이 에너지 및 원료 코스트 상승압력이 지속되자 추가적인 가격상승을 추구하고 있다.

PS 재고는 낮으나 수요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BASF의 Joliet 플랜트 정전사고로 인해 공급타이트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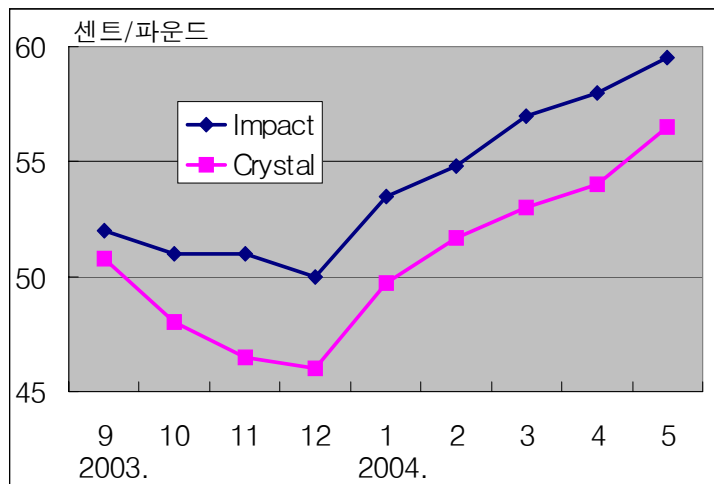
PS 생산기업들은 2004년 5월 톤당 4센트 인상에 이어 7월 3센트 인상 방침을 발표했다.

분석가들은 앞으로 PS 수요는 경제회복에 힘입어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나 원유나 벤젠(Benzene) 및 Styrene 등의 코스트 상승 압력으로 시장수급은 타이트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BASF는 2004년 PS 수요가 3.0% 신장하고 2004년에는 3-3.5% 신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Joliet 플랜트의 모든 생산라인을 가동해 생산을 확대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원료코스트가 2003년 4/4분기 이후 60% 이상 상승해 PS 가격상승을 상쇄했으며 앞으로 원유·벤젠·Styrene 등의 가격이 더 상승한다면 마진압박을 가중시켜 PS 가격의 추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PS 가격추이



자료) Townsend's Polymer Services & Information

대부분의 PS 생산기업들이 2004년 1/4분기 수요 둔화와 원료코스트 상승으로 플랜트 가동률을 낮추었고 BASF의 Joliet 플랜트 가동중단이 겹치면서 PS 재고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편, PS 생산기업들은 Solid PS 가격에 대해 2004년 1월에 파운드당 4센트를 인상한데 이어 2월 4센트, 3월 3센트, 5월 4센트, 7월 3센트 추가 인상해 왔다.

<화학저널 2004/08/20>